

강 의 계 획 서

1. 개요

강의 일시	20220801~20221107 / 10:00~13:00[3시간]	
강의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쓰기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사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철학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융복합 <input type="checkbox"/> 고전 읽기
강의명	주제목	니체(Nietzsche)에게 배우는 디오니소스적 지혜
	부제목	아모르 파티!(amor fati),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주임 교수	성명	허 현 숙
	전공	철 학 (세부전공: 서양철학_철학적 인간학)
	소속	충남대학교 철학과
수업 목표 및 개요		<input type="checkbox"/>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읽고 그리스 비극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비극을 사랑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민족적 지혜, 즉 명랑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디오니소스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아모르 파티!).
		<input type="checkbox"/> 수업 개요 <p>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비극의 탄생』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고 나누는 강좌입니다. 먼저 『비극의 탄생』은 그리스 비극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비극을 통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비롯되는 염세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에게 비극은 삶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예술이며, 디오니소스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디오니소스적 합창을 담은 즐거운 비극입니다.</p> <p>그가 전하는 철학적 지혜는 아모르파티!(amor fati),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입니다. 즉,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자신을 운명을 사랑할 때 운명도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춤을 추듯, 놀이에 흠뻑 빠지듯,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니체와 만남을 기대합니다.</p>
수업 운영 및 구성의 특성		<p>강좌 전에 각 주차별로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그에 관련된 도서를 먼저 읽어 옵니다. 이때 수강생들은 간단한 메모나 궁금증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p> <p>본 강좌는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면서 준비한 니체들을 서로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체의 다소 난해한 주요 개념들과 사상들은 차근차근 풀어내고 이해하면서, 니체의 창조적 예술로서의 참된 비극과 함께 디오니소스적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p>
수강 요건		<input type="checkbox"/> 수강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주차별 강의계획

회차	학습주제	중심 질문 및 교육 내용	주 텍스트
[대면] 1주차 22.8.1.	오리엔테이션 철학, '지혜의 사랑'	<div>□ 중심 질문</div> <p>물음은 곧 철학의 시작이며 철학 자체입니다. 철학에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무엇인가?</p> <div>□ 교육 내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및 인사나누기 ■ 서로서로 다른 삶의 수레바퀴들이 이리로 저리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철학은 바로 '자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 알베르 카뮈, 『시지프의 신화』, 김화영 옮김,]책세상, 1997.
[대면] 2주차 22.8.8.	니체의 생애와 사상	<div>□ 중심 질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체, 그는 누구인가? ■ 니체가 『자기비판시도』에서 던지는 물음은 무엇인가? <div>□ 교육 내용</div> <p>니체 사상은 그의 생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쇠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바로 니체 자신이며 진지하고 절실한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적 정신을 독일 문화와 결합시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저서 『비극의 탄생』(1872)을 소개합니다. 니체는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p>	니체의 자서전 -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을 보라』 읽기; - 프리드리히 니체, 『자기비판시도』 읽기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06, 39쪽까지)
[대면] 3주차 22.8.22.	그리스 비극의 비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div>□ 중심 질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니체는 그리스인들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일까? ■ 니체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div>□ 교육 내용</div> <p>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기원전 5세기 크게 부흥한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예술인 비극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실존의 공포와 경악 앞에 살기 위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등 올림포스 신들이라는 꿈의 산물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민족적 지혜입니다.</p>	-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1-10장 읽기

<p>[대면] 4주차 22.8.29.</p>	<p>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 모방과 카타르시스(katharsis)</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극 속에서 ‘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극의 목적은 연민(eleos)과 공포(phobos)를 느끼고 그걸 해소시켜 특정한 쾌감, 즉 감정(pathos)의 카타르시스(katharsis)를 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 카타르시스는 관객이 주인공이라는 영웅의 희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정화입니다. 니체는 비극 주인공의 파멸에 대한 관객의 이러한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합니다. 니체는 감정(pathos)을 변용하여 카타르시스의 미학적 유희로 이해합니다.</p> </div> </div>	<p>-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2002.</p>
<p>[대면] 5주차 22.9.5.</p>	<p>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신과 인간의 운명</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극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 신화 ‘오이디푸스’와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어떻게 다른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고대 그리스 비극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비극적 드라마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 개인의 비극적 운명과 신탁의 필연적 실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무서운 고통을 통해 결국 자신의 주위에 축복이 넘치는 마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비극을 통해서 직면한 현실은 현실을 부정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p> </div> </div>	<p>-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천병희 옮김, (숲-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p>
<p>[대면] 6주차 22.9.19.</p>	<p>죽음으로 완성시킨 소크라테스의 지혜</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얹힌 진실은 무엇인가? ■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플라톤의 『파이돈』은 파이돈이 에케라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는 대화편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은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며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육체에서 해방되는 영혼의 불멸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그의 사상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p> </div> </div>	<p>- 플라톤, 『파이돈』, 전현상 옮김, 이제이북스, 2013.</p>

<p>[대면] 7주차 22.9.26.</p>	<p>소크라테스주의와 그리스 비극의 몰락</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크라테스는 고대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그리스 비극의 몰락을 초래한 ‘소크라테스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니체는 소크라테스를 디오니소스적인 열광의 충동과 아폴로적인 꿈의 충동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과 갈등을 체현하고 옹호하는 인물로 묘사 하였습니다. 그리스 비극 안에서 이 두 충동들의 위대한 조화가 와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갈등 때문입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에게서 본 디오니소스적인 광란과 아폴로적인 이성적 통찰 사이의 매워질 수 없는 간극을 살펴보자 합니다.</p> </div> </div>	<p>-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11-16장 읽기</p>
<p>[비대면] 8주차 22.10.10.</p>	<p>괴테의 고대 그리스 신화 창조</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테의 서사문학 『파우스트』 ■ 고대비극과 근대비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적인 문화는 괴테의 비극 『파우스트』에서 완전히 표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독일 민중의 파우스트 전설에 그 기원을 찾아 당시 억압적인 중세의 봉건 질서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비극 『파우스트』는 인간의 영원하고 진실한 욕구인 인간구원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p> </div> </div>	<p>- 요한 볼프강 괴테, 『파우스트 I』, 이인웅 옮김, 문학동네, 2015.</p>
<p>[대면] 9주차 22.10.17.</p>	<p>실러의 고대 그리스 음악 재현</p>	<div> <div> <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러의 극문학 『메시나 신부』 ■ 『메시나의 신부』가 고전극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현대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p>실러의 비극 『메시나의 신부』(1803)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독일 연극 무대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실러에 의하면 “비극의 합창을 재도입함으로써 합창단이 자유로운 시민이며 그들의 합창이 사회정치 공동체에서 시민 됨을 체험하게 하는 형식이 된다.” 실러는 『메시나의 신부』에서 고대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운명 비극으로 그 방향을 전환 합니다.</p> </div> </div>	<p>- 프리드리히 실러, 『메시나 신부』, 이재진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p>

<p>[대면] 10주차 22.10.24</p>	<p>바그너의 음악극: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의 부활</p>	<p><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체가 말하는 비극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 그리스 비극에서 음악이 주는 창조적인 힘은 무엇인가? <p><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p> <p>니체는 비극의 비밀스런 가르침이란 “개별화는 악의 근원이며 예술은 개별화의 속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기쁜 희망이며 다시 회복된 통일에 대한 예감이라는 고찰”이라 말합니다. 비극의 효과는 개별화의 속박을 벗어나는 관객의 미적 활동이며, 관객이 하나로 일체화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드러내주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디오니소스적 음악’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p>	<p>-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17-25장 읽기</p>
<p>[대면] 11주차 22.10.31.</p>	<p>『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삶의 메타포</p>	<p><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체가 새롭게 창조한 자기 세계는 무엇인가?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p><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p> <p>『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은 차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아 니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낸 니체의 주저(主著)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머무르던 동굴에서 하산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핵심 사유들은?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위버멘쉬’, ‘신의 죽음’ 등으로 최상의 디오니소스적 창조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레지널드 홀링데일, 홍성광 옮김, 펍컨클래식코리아, 2010.</p>
<p>[대면] 12주차 22.11.7.</p>	<p>니체처럼 아포리즘적 글쓰기</p>	<p><input type="checkbox"/> 중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된 삶과 행복한 삶의 시작! ■ 디오니소스 축제 때 울려 퍼졌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을까? ■ 니체가 찾은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p><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p> <p>니체가 의미하는 비극의 개념은 ‘우리의 일련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이며, 하나의 신성한 긍정입니다.</p> <p>오늘날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비극의 탄생의 가능성을 모두 함께 나누어 봅시다.</p>	<p>-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레지널드 홀링데일, 홍성광 옮김, 펍컨클래식코리아, 2010.</p>